

주체사상은 격동하는 21세기와 더불어 끝없이 빛날 것이다

우리는 다음 해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을 맞이한다. 김일성조선의 100년사를 긍지높이 돌이켜보고 새로운 100년대를 내다보면서 우리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얼마나 위대하고 생활력있는 사상인가를 가슴뜨겁게 생각하게 된다.

혁명사상의 위대성은 그 영원불멸성에 있다. 주체사상은 오늘의 21세기에 도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시대의 지도사상으로 계속 빛을 뿌리고있다. 그 시대성, 보편성에서도 손색이 없고 진보적인 인류의 심장을 뚫어주는 견인력에서도 변함이 없다. 시공간적한계를 초월한다는 바로 여기에 주체사상의 진가가 있다.

위인은 그의 리념과 함께 영생한다. 아버지수령님 탄생 100돐은 인류의 태양으로, 사상리론의 영재로 영생하시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파시하는 인류사적 대경사로 빛날 것이다.

이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었다. 주체사상은 고도로 창조적인 사상이며 공명정대한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사상분야에서 편협한 배타주의를 배격한다. 주체사상의 발전완성의 력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이바지하는 사상이라면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자제의 사상체계안에 포섭하여온 력사였다. 그것은 마치도 수많은 물결기들을 인입하면서 도도히 굽이쳐나가는 대하의 흐름과 같은것이였다. 이 놀라운 견인력과 공명정대성으로 하여 주체사상은 년대와 년대, 세기와 세기를 이어가며 커다란 생명력을 발휘하여온것이다.

21세기 인류가 나아가길 길은 아직도 روشن하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기의 미래는 전혀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인류의 생활을 밀부리려 해 본다면 그 어떤 정치적각변동도 일어났다 해도 주체사상이 그 창시자의 존함과 함께 계속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되리라 믿는다. 현실의 발전의 방향을 규정지어준 지난 10년의 혁명실천이 이것을 예언해주고있다.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이 21세기의 흐름을 앞으로 도반제자주의 한걸음도 뒤떨어지지 않게 되리라 믿는다. 주체사상이 그 창시자의 존함과 함께 계속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되리라 믿는다. 현실의 발전의 방향을 규정지어준 지난 10년의 혁명실천이 이것을 예언해주고있다.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이 21세기의 흐름을 앞으로 도반제자주의 한걸음도 뒤떨어지지 않게 되리라 믿는다. 주체사상이 그 창시자의 존함과 함께 계속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되리라 믿는다. 현실의 발전의 방향을 규정지어준 지난 10년의 혁명실천이 이것을 예언해주고있다.

사람이고 새로운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사람이다. 인간이 있고서야 과학도 있고 기술발전도 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필연적으로 인적요인을 더욱더 중시할것을 요구한다.

현실적으로 21세기 지식경제시대로 와서 문제제기되고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지금 그 어느 분야에서도 요구되는것은 높은 창조적능력을 가진 인재들이다. 인재가 있으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말이 통용되고있는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사람됨을 자연을 정복하는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문제는 어느 시대에나 중요하게 나섰지만 오늘날처럼 절박하게 나선 때는 없었다. 이 모든것은 세계의 개조자인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항해 대한 주체의 관건과 뒤편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응면한다 말해주고있다.

첨단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나라들이, 민족들사이의 편견과 교류를 더욱 긴밀하게 하여주었다. 물론 이것은 인류사회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매우 좋은 일이다. 오늘과 같은 시기에 특별히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국제적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면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도양에 발을 든든히 붙이는 주체적인 입장을 철저히 견지하는것이다. 민족은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온 사람들의 매우 공고한 집단이다. 과학에는 국적이 없지만 인간에게는 민족이라는 사회생활단위가 있어야 한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세계가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주체성과 민족성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한다. 주체사상이 밝힌 자주의 길, 이것이야말로 대개 민족이 자제의 최대한길의 자유로와 발전과 진전적발을 이룩해나갈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이다.

세 세기의 현실은 주체사상이 인류의 존망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들에 올바른 해답을 주는 사상이라는것을 확증해주고 있다.

우호하는 사람은 마땅히 다른 민족의 자주성도 존중해야 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은 사상과 신앙, 제도와 문화를 달리하는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관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기치로, 민족들사이에 폐기를 막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분열리간책동을 짓부시는 위대한 무기로 되고있다.

인류의 미래를 밝혀주는 진보적사상은 인민들의 심장을 뚫어줌마련이다. 20세기에 세계적판도에서 일어난 주체사상에 대한 지지와 신봉의 열풍은 21세기에 와서도 세차게 불어치고있다. 지금 세계의 수많은 정계, 학계, 언론계의 지명된 인사들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주체사상에 공감하고 그것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이것은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현시대인이란 누구나 갈복하게 하는 주체사상의 커다란 매력에 감화하여준다.

공인된 시대의 지도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의 지위와 견인력은 오늘날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할것이다.

없는 자주의 강국으로, 인공지위구조제작국, 발사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빛을 뿌리게 된것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조국을 부흥시키고 세계에 과감히 도전해나가기 한 변명의 기치이다.

경제적부흥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전략은 철두철미 현실적이고 실리가 있는것이여야 한다. 그것은 또한 당면한 곤란을 모면하기 위한 근시안적인것이 아니라 전방성이 있는 전략으로 되어야 한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주체사상이 밝힌 자립, 자강의 전략은 이러한 요구를 완벽하게 구현하고있다.

새 세기에 들어섰을 때 우리앞에는 고난의 행군의 상처를 하루빨리 가시고 우리 경제를 21세기에 맞는 현대적이며 발전된 경제로 추켜세워야 할 과업이 나 있었다. 우리 당은 천만군민의 강한 정신력과 우리의 무진장한 자원과 인체에 기초하여 경제강국,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는 투쟁을 다그쳐왔다. 주체사상을 변함없는 신조로 삼는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란 있을수 없었다. 그 길은 비록 험거운 길이었지만 반드시 풍만한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정당한 길이었다.

우리는 오늘의 자랑한 현실을 볼 때마다 우리 당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가를 심장깊이 절감하게 된다. 최근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철생산체제가 완성되고 주체심음, 주체비료가 쏟아져나오듯과 같은 특대형사변이 려이 일어났다. 도체가 우리의 기술과 자원으로 움직이는 주체, 국산화된 위대한 생산기자들이 일떠서고있다. 오늘 사람들은 우리 조국 땅에 어딘가 위대한 전변을 통하여 주체사상의 위력을 생동한 화폭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만약 어렵다고 하여 주체사상이 가르키는 길에서 탈선하여 낚을 쳐다보며 살았다면 서민의 고비들에서 영영 주저앉고말았을것이다.

지금 우리 조국은 세계를 향하여 무섭게 돌진하고있다. 도처에 지식경제시대의 전열이 당당히 서기 위한 최첨단들과 불꽃이 타오르고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강대국의 체모를 갖추기 위한 투쟁에서 늘려나가는 성과들이 일어나고있다. 존엄은 주체조선은 그 어느 분야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인민대중의 민족제일주의정신, 주체무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국력경쟁에서 기어이 이겨야 한다는 만만함 투지와 배심이 오늘의 위대한 현실을 안아온것이다. 주체사상은 최악의 역경에 처한 우리 조국을 세계를 향하여 솟구치게 한 우리 지혜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만능의 지혜를 뚫어주고 강성변명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나갈것이다.

주체사상은 새 세기에 도 변함없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태가 빛을 뿌리게 한 생명수이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지던 투쟁 환경도 달라지고 사람들의 생활상속이 바뀌어, 정서도 달라지지만 우리는 이면 속에서 사회주의의 근본리념과 원칙을 고수하고 구현해나가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주의의 본태를 철저히 살려가려는것, 이것이 사회주의가 진전할수록 전면에 나서는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들의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토양으로 하여 세워지고 강화발전되어왔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모든 특성과 우월성은 사람중심의 주체의 사회역사적원리를 구현한데서부터 나타나고있다. 주체사상의 리념에 따라 건설되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인민적인 사회주의로 빛을 뿌리게 되었다.

우리의 사회주의가 21세기의 새로운 사회역사적환경에서도 자기의 모습을 잃지 않고있었는 주체사상이라는 사상적지배력이 굳건히 지켜내었다. 지금 지구상에는 반사회주의적역풍이 광범적으로 불어치고있으며 그 에 불은 우리 나라에 쏘이고있다. 어떤 속에서든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중심, 인민사령의 리념이 변함없이 구현되고있다. 인민중심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빛나는 대가비적정신들이 끊임없이 일떠서는 사회주의가 우리의 사회주의이다. 우리 사회주의의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성격은

1

21세기의 첫 10년이 지나갔다. 기대와 불안, 희망과 좌절감이 서로 엮여있는 속에서 새 천년기가 시작될 때가 다가올것 같은데 인류는 벌써 21세기의 두번째 10년대에 살고있다. 이 격동의 년대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교훈도 가르쳐주고있고 두려운 전리도 새겨주었다. 우리는 새 세기의 첫 번째 주체사상의 진리성이 새로운 력사적현실속에서 더욱 뚜렷이 확증된년대였다는것을 긍지높이 자랑하게 된다.

지난 10년은 이전 세기에는 예상치 못하였던 새로운 문제들이 려이 되었고 복잡다단한 년대였다.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인류는 새로운 도전에 부딪치게 되었다.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이 《반레로전》이라는 명목으로 더욱 악랄해지고 도처에 새로운 열점지대가 생겨났다. 날로 격렬해지는 분쟁문제들, 《세계화》의 흐름속에 국제적인 범위에서 격화되는 부정부, 빈익빈 현상 등 오늘의 세계가 안고있는 문제들은 참으로 심각하다. 확실히 세계의 양상은 달라지고 정세는 더욱 복잡하여졌다. 이 모든 세계적인 난문제들의 근저에는 인간의 자주성을 관한 문제가 놓여있다.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류의 지향을 반영한 리념은 오늘 더욱더 사활적인 것으로 되고있다.

지난 10년은 사회발전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 대변혁의 년대였다. 지금의 1년은 인류발전사에 전후후후한 대혼란을 남겼다고 하는 2세기의 10년, 20년과 맞먹는다. 시간은 모든것을 뒤섞어준다. 시간이 흐르면 무엇이든 잊어버리게 된다. 지난 세기에는 빛이 나던 수많은 사상리론적인 제부들이 오늘에 와서는 생명력을 잃고 낡은것으로 치부되고있다. 그러나 주체사상의 그 어떤 리론이나 명제도 오늘의 급격한 시대적변화에 따라지지 못하는 일이 없었다. 시대의 흐름에 뒤지지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언제나 시대의 첨단에서 그 앞길을 명시하여준다는데 주체사상의 커다란 위력이 있다.

원래 주체사상의 발전과 구현의 력사는 세월과 더불어 그 견인력과 변혁적의가 더욱더 커져온 력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주체사상은 공인된 시대적사조로 되고있으며 력사의 전진과 더불어 그 견인력과 변혁적의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적 카본화에서 새 새로운 시대적요구를 명철하게 통찰하시어 주체사상의 원리를 천명하시고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토대를 제시하신 때로부터 80여년이 된다. 주체사상은 창시된 시기부터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혁명운동을 추동하는 기치로 되고있다.

지난 80여년세월 시대적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했고 그 과정에 제기된 리론실천적과제는 천태만상이었다. 주체사상은 그 모든 단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상리론적, 방법론적기초로, 실천의 무기로 되고있다. 민족해방혁명시기와 사회주의혁명시기, 사회주의건설시기에도 그리고 사회주의가 세계적인 체제로 전환된 시기나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된 이후시기에도 그 언제나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앞길에는 주체사상

2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의 21세기 진군을 위한 승리와 위훈으로 수놓게 하는 불패의 혁명적기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조선혁명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혁명이며 주체사상을 떠나서는 조선혁명의 모든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과 미래는 지도사상에 의하여 좌우된다. 우리 인민은 지난 20세기에 주체사상의 기치하에 진전함으로써 민족의 지위와 처지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였다. 주체사상승리의 이 자랑한 력사는 새 세기에 도 즐겁게 이어지고있다.

우리는 지금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불패의 위력을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21세기 강성대국건설전선을 통하여 더욱 깊이 체득하고있다. 우리가 건설할 사회주의강성대국은 주체, 자주, 자립, 자위의 지도원칙이 가장 철저히, 가장 높은 수준에서 구현된 강국이다.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의 근본방도는 인민대중의 정진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며 창조적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 데 있다. 강성대국건설기호야말로 시대와 교조에 물들지 않은 인민, 주체의 사상, 리념, 방법으로 철저히 무장한 당과 인민들이 높이 들수 있는 구호이다. 주체사상이라는 리념의 등대가 없었다면 강성대국건설이라는 말자체도 나오지 못하였을것이다.

우리는 지금 강성대국의 대문이 눈앞에 보이는 보람찬 시기에 살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늘의 자랑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혁명하고있는가를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주체사상은 우리 조국과 민족이 가장 옹호한 시련속에서 자주의 대를 굳건히 고수하게 한 사상적기둥이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새 세기의 첫 10년은 20세기의 90년대에 못지않게 고난과 투쟁의 시기였다. 우리에게 대항 제국주의압박과 제재, 분쇄책동은 최근년간에 와서 극도에 이르렀다.

새 세기 우리 인민의 진군은 한마디로 가장 곤란한 적대적력과 맞서 우리의 리념, 우리의 원칙을 견결히 고수하고 자주적대를 끝까지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주체사상은 견결한 자주정신을 심어주고 철저한 자주정치를 구현하게 하는 혁명사상이다. 새 세기 진군의 앞길에 가로놓인 시련의 언덕을 전면돌파하는데서 주체사상은 언덕을 헤아릴수 없다.

자주는 정의이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주체사상이 우리 인민에게 심어준 드림있는 신념이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우리 인민적력 민족적존엄을 목숨까지 버려도 버리지 않고 사생결단하여 싸우는 인민,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결심대로 자기 할바를 다하는 인민은 없다.

우리 조국은 언제나 세계정치의 초점으로 되어왔다. 해마다 세계정치지대에서 일어난 중대사변들을 쫓을 때마다 조선의 기적이 자꾸 없지는 때가 없었다. 꺾일수도 없고 변할수도 없는 주체의 신념이 있었기에 우리 조국이 그 누구도 속물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김정일 동지의 정치에서 기본특성을 이룬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쉬임없이 해쳐가시는 전진길, 현지 지도의 길주에는 전철같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꽃피어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 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진 심초소를 찾으시어 뜨거운 은정을 베푸신 이야기도 있다. 어느새인가 인민군대의 어느 한 심방어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곳 군인들은 물론 군관가족들모두를 한몸에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몸걸에도 그러던 아버지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신 끝없는 행복과 환희에 겨워 울고있는 군인들과 군관가족들.

이 불멸의 화폭에는 창으로 가슴 뜨거운 사연이 깃들여있다. 파도를 헤치고 심초소에 도착

한 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걱정심방어대의 군인들과 사친을 찍으려고 하는데 단 한명도 빠짐없이 다 참가시켜야 한다고 이르셨었다. 그러시면서 기념촬영시간에 동무들이 초소군무를 대신 시면 모든 전사들이 다 사친을 찍을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며 군관들의 안해들과 부모들도 기념촬영에 다 참가시켜야 하겠다고 하시며 각근히 마음쓰시었다.

모든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 이곳 군관가족들의 생활을 잘 돌보아주며 그들의 자녀들을 잘 기르는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도 취해주시었다.

초소의 곳곳에 사랑의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기념 촬영을 하고 하시면서 기념촬영과 관련한 조직사업을 잘하여야 하겠다고 은정어린 대책까지 취해주시었다.

절세의 위인의 극진한 보살핌속에서 심방어대초소마다 장병, 군관이 명사들을 대신하여 경계군무를 시고 심초소의 군인들과 가족들

우리는 새대를 이어오며 혁명의 지도사상을 옹호고수하는 시대적무임을 창조하여야 하는 인민이다.

선행한 혁명의 세대들이 주체사상을 생명처럼 고수하여왔기에 이 사상이 새 세기에 와서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는 것이다. 선군시대에 사는 오늘의 세대들은 주체사상옹위의 고귀한 전통을 굳건히 계승하여야 한다. 우리는 그 전통을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어야 한다. 이것은 21세기에 사는 오늘의 세대기대과 력사앞에, 진보적인인류에게 지닌 가장 큰 사명이다.

장군님 주체사상의 조국에서 사는 인민답게 주체사상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을 지녀야 한다. 주체사상의 생명력은 오늘 뿐아니라 인류의 먼 미래에도 영원하다는 투철한 신념, 주체사상을 모든 문제해결의 만능의 무기로 틀어쥐고나가는 확고한 관념,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어떤 사상요소와도 추호도 타협하지 않는 견결한 원칙성, 이것이 우리 혁명전선들이 지녀야 할 자세이며 림장이다. 우리 혁명대오에 있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옹호를 꺾는 상황에 처하고 싸운 1970년대 열렬투사들의 그 열정과 투지가 언제나 차남쳐야 한다. 새 세대들은 미래의 주인공이며 주체사회주의의 계승자이다. 우리는 자리를 새로 세대에 대한 주체사상요양, 선군사상요양을 혁명의 전통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업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밀고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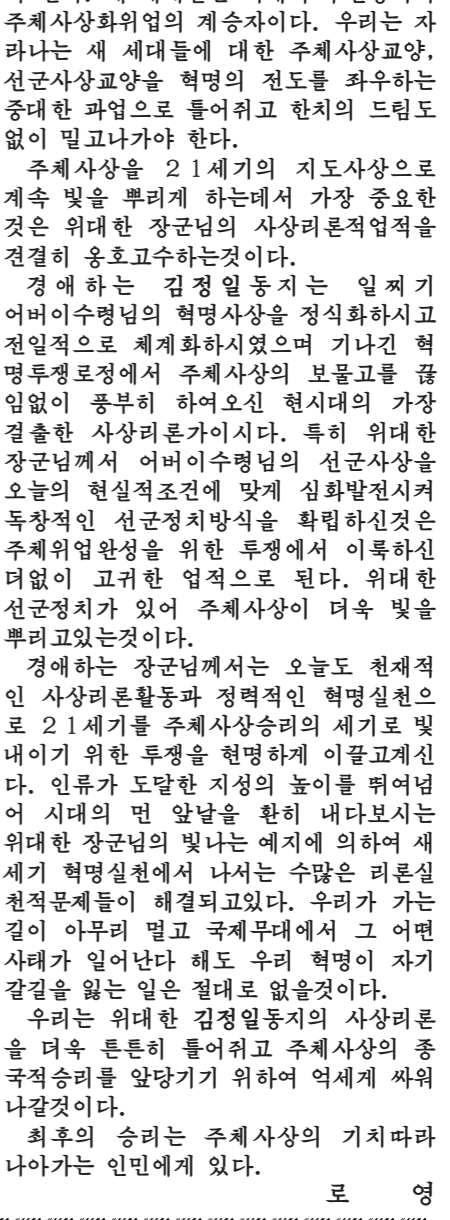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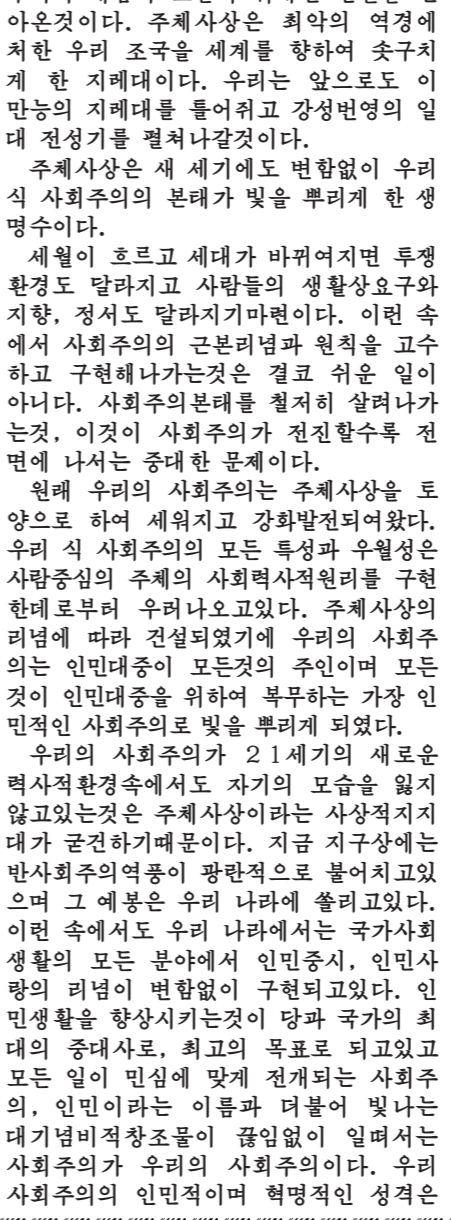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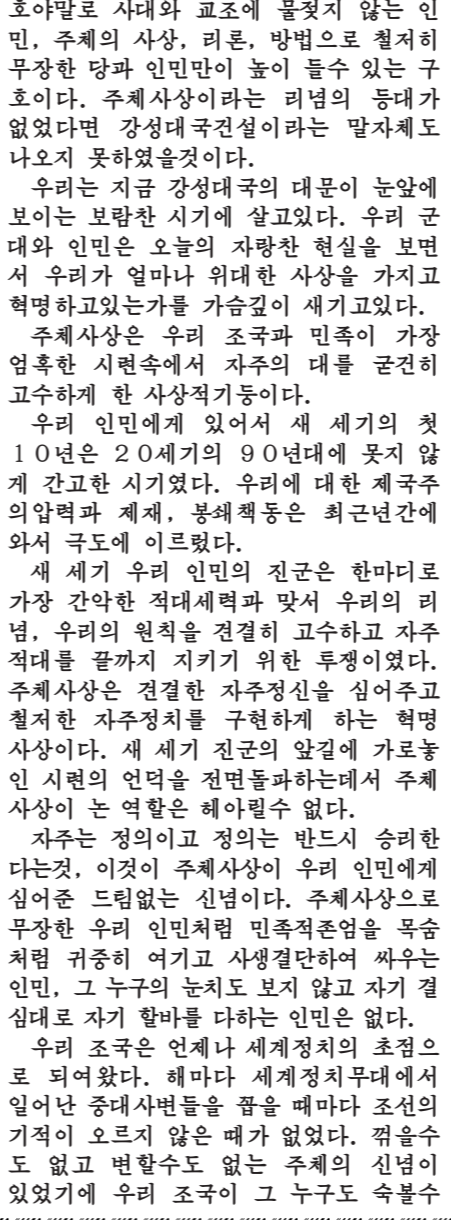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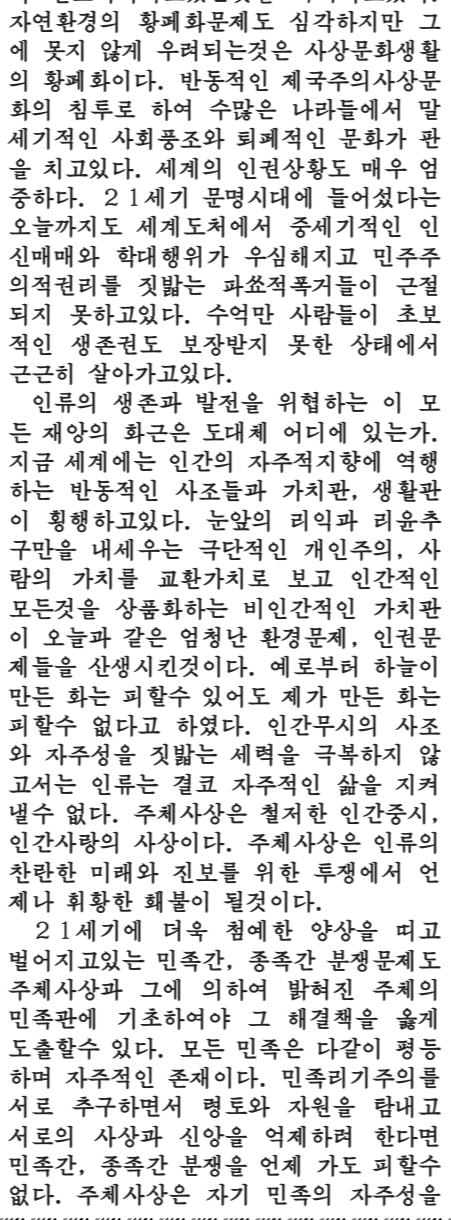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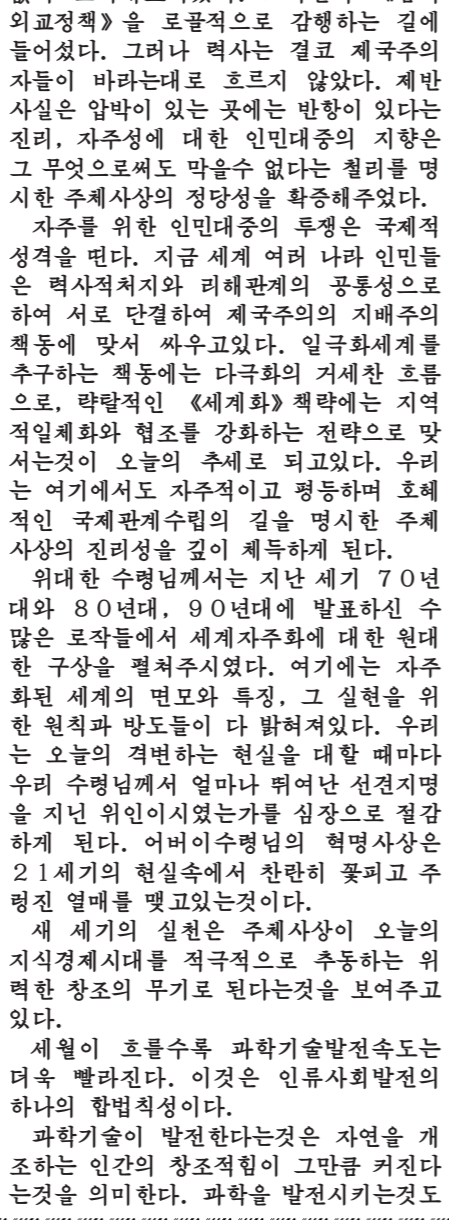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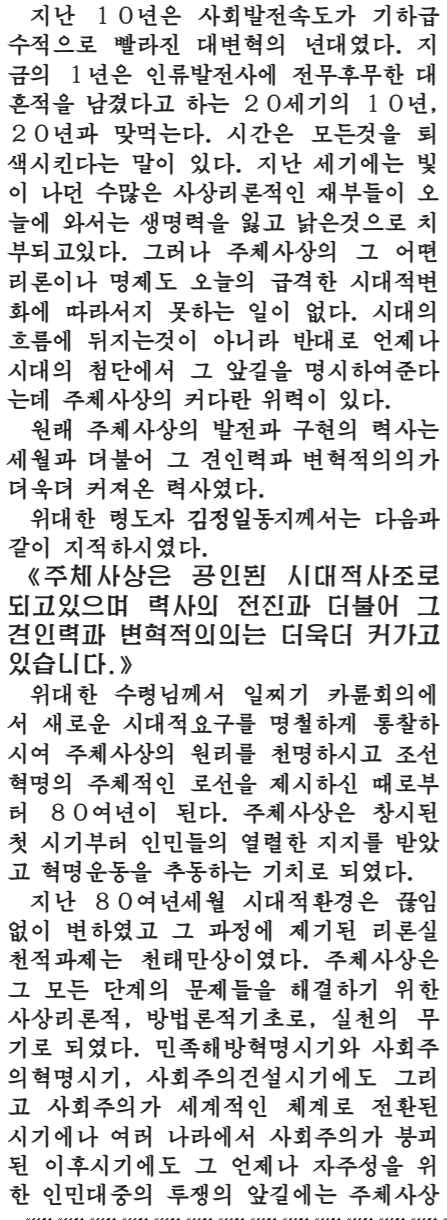
주체사상을 21세기의 지도사상으로 계속 빛을 뿌리게 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적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는 일찍이 아버지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시고 전일적으로 세계화하시면서 기나긴 혁명투쟁과정에서 주체사상의 보물고을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여오신 현실에서의 가장 훌륭한 사상리론가이시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의 선군사상을 오늘날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심화발전시켜 독자적인 선군정치방식을 확립하신것은 주체위업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신 데에서 이룩한 공헌이 크다고 된다. 위대한 선군정치가가 있어 주체사상이 더욱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오늘날도 천재적인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혁명실천으로 21세기를 주체사상승리의 시대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천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인류가 도달한 지성의 높이를 뛰어넘어 시대의 먼 앞날을 환히 내다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빛나는 예지에 의하여 새 세기 혁명실현에서 나서는 수많은 리론실천적문제들이 해결되고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아무리 멀고 국제무대에서도 어떤 사태가 일어나도 해도 우리 혁명이 자기 길을 잃는 일은 절대로 없었었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을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사상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역세계 싸워 나가고있다.

최후의 승리는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인민에게 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거대한 견인력과 시대적의의에 대하여 가슴깊이 새겨가는 참관자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김정일 동지의 정치에서 기본특성을 이룬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쉬임없이 해쳐가시는 전진길, 현지 지도의 길주에는 전철같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꽃피어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 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진 심초소를 찾으시어 뜨거운 은정을 베푸신 이야기도 있다. 어느새인가 인민군대의 어느 한 심방어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곳 군인들은 물론 군관가족들모두를 한몸에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몸걸에도 그러던 아버지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신 끝없는 행복과 환희에 겨워 울고있는 군인들과 군관가족들.

이 불멸의 화폭에는 창으로 가슴 뜨거운 사연이 깃들여있다. 파도를 헤치고 심초소에 도착

사랑의 자욱은 외진 심초소에도

모든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 이곳 군관가족들의 생활을 잘 돌보아주며 그들의 자녀들을 잘 기르는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도 취해주시었다.

초소의 곳곳에 사랑의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기념 촬영을 하고 하시면서 기념촬영과 관련한 조직사업을 잘하여야 하겠다고 은정어린 대책까지 취해주시었다.

절세의 위인의 극진한 보살핌속에서 심방어대초소마다 장병, 군관이 명사들을 대신하여 경계군무를 시고 심초소의 군인들과 가족들

석탄증산으로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1 면에서 계속

보고자는 위대한 평도의 손길아래 석탄공업부에서 많은 성과가 이뤄졌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석탄공업적으로 침수갱복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덕천, 북창, 독창,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 능력확장공사가 추진되어 석탄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게 되었다.

2. 8직동청년탄광, 천성청년탄광, 제남탄광에서는 골진을 앞세우고 갱진설과 벨트콘베어공사를 다그쳐 석탄생산성과를 확대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당의 최첨단과학기술을 받들고 탄광들의 현대화, 과학화가 적극 추진되어 석탄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한층 강화되었다.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사업가들과 일보세, 사상생진적공모에서도 전진이 일어났다.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는 새로운 기술혁신안과 창의고안을 받아들여 운반능력을 3배로 높이고 석탄생산을 3.8배로 장성시키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또한 모든 탄광연합기업소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해마다 많은 설비, 부속품들을 만들어 석탄생산에 리용하고있다.

보고자는 지난 기간 이룩된 모든 성과는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경제강국건설에서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도록 결을 걸을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제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평도의 고귀한 결심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송고한 경의를 드러내며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오늘 석탄공업부문의 성과는 석탄동맹국들의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건설사이에 특기할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업의 식량인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현시기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보고자는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역사적인 조선로동당대포자정신을 받들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단결의 중심, 평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당의 위업을 석탄증산으로 받들어나가는 전위투사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절세위인들의 평도업적이 깃들여있는 단위들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좋은 탄전들과 주요대상들에 석탄을 보장하고 있는 탄광들에 력량을 집중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탄광들에서는 고속도굴진운동을 힘있게 벌리고 앞선 발파방법과 작업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확보탄량을 넉넉히 마련함으로써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중심을 두고 석탄공업부문의 최첨단과학기술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각지 탄광기계공장들과 자체의 공구수리기계를 현대적기술에 기초하여 정비보장하고 탄차와 설비, 부속품생산을 부쩍 늘여 생산성향화에 이바지하도록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일군들이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행정경제사업의 정치화를 실현하고 계획규율, 재정규율, 로동행정규율을 확립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보고자는 《조선은 절실하면 한 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불굴의 정신력으로 특기할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 기사장 한홍수는 석탄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여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평도업적이 깃들여있는 영평의 일터를 빛내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제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화룡탄광에서 생산과 경영활동의 정교화를 실현하고 수리기계들을 현대적으로 꾸러 탄차와 쇄발 등을 자체로 만들어 석탄생산을 정상화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2. 8직동청년탄광 3경 제탄 1층대 당세포비서 박윤남은 중대가 지난 10여년동안 해마다 탄전생산계획을 120%이상으로 넘쳐 수행하였으며 이 나날에 2중3대 혁명붉은기를 쟁취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150일전투와 100일전투에서 석탄공업적으로 제일먼저 인민경제계획을 끝내고 최고생산년도수준에 올라선데 대한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 지체인 신원일의 토론은 참가자들속에서 깊은 감동을 자아냈다.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지체인 문명환은 아버지수령님과 경제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평도밑에 기업소가 끝까지 무연탄생산까지 전진하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계획화사업과 재정관리, 설비관리, 자체관리사업을 짜고들어 기업판리에서 실리를 보장하였다고 말하였다.

사회주의본배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행정경제사업의 정치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으며 내구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여 석탄생산계획을 초과수행하는데 대한

경험을 가지고 문천탄광 지체인 김진규가 토론하였다.

덕천탄광 사동동 고속도굴진소대장 최희룡은 18년전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이 담긴 친필표를 기어이 집행함으로써 강성대국건설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에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정열을 안고 봉착된 갱속에서 중대가 140여시간 전투를 중단없이 벌리었다는 태항탄광 부부담비서 리수신, 침수된 갱들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통하여 집단의 단합된 힘이 얼마나 위력한가를 절감하였다고 한 봉천탄광 경장 김경남의 토론은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2. 8직동청년탄광 지체인 포희성, 통등탄광 기사장 리영덕, 흑령탄광 기사장 김인섭, 개천탄광기계공장 기사장 우일명, 인로탄광 3경 제탄1층대 중대장 우원용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생산에서 혁신을 창조하는데 대하여 토론하였다.

그들은 기술혁명의 불길놀이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열의를 최대한으로 발휘시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한편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성과를 확대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공을 확립하고 기술자, 기능공들의 기술수준을 끌어올리었으며 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놓음으로써 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합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지체인 김창열, 봉창지구탄광 경장 강일, 고건원탄광 수직경 분조담당비서 리정인은 강성대국건설의 승리의 로동계급의 혁명적열의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대중을 석탄증산으로 불려일으키는 송풍기, 가속기가 될것을 표명하였다.

그들은 고속도굴진운동을 적극 벌려 탐사배양을 확보하고 자체의 힘으로 설비, 부속품문제에 해결하여 석탄생산을 늘여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통문탄광 목장장 리선준은 올해에 알곡과 축산물생산을 훨씬 늘이며 투입기계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을 통하여 석탄증산에 이바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의에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었다. 대회는 《혁명적 수뇌부 결사옹위 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지구탄광연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방영옥, 덕성탄광 지체인 김명일은 석탄이 평광 나와야 비로와 섬유도 쏟아지고 전기와 강재도 나온다는것을 명심하고 탄부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갈 의지를 피력하였다.

그들은 혁신적인 안목과 대담한 작전, 치밀하고 완벽한 조직사업과 능동적인 지휘로 생산동맹국들을 드세 차례 벌려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탄광의 현대화와 생산능력확장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석탄증산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 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대회의에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었다. 대회는 《혁명적 수뇌부 결사옹위 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지구탄광연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방영옥, 덕성탄광 지체인 김명일은 석탄이 평광 나와야 비로와 섬유도 쏟아지고 전기와 강재도 나온다는것을 명심하고 탄부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갈 의지를 피력하였다.

그들은 혁신적인 안목과 대담한 작전, 치밀하고 완벽한 조직사업과 능동적인 지휘로 생산동맹국들을 드세 차례 벌려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탄광의 현대화와 생산능력확장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석탄증산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 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대회의에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었다. 대회는 《혁명적 수뇌부 결사옹위 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방직설비와 방직부속품생산에서 혁신

신의 주 방직기계공장에서

공동시설과 김철로동계급의 전투적호소를 받아안고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신의주방직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방직설비와 방직부속품생산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생산자대중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조성을 적극 발동하면 그들속에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과 창의고안, 합리화안인 얼마든지 나올수 있으며 경영업의 현대화를 넘어서 속도로 추진시킬수 있습니다.》

공조담당위원회는 경영업의 현대화를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면적위에서, 보통수준이 아니라 최첨단수준에서 면 앞날을 내다보며 전망성있게 추진시켜 나가는 당의 구상을 받들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조성을 적극 발동하고있다.

일군들은 공장의 현대화를 하 나적하나씩 실속있게 해나가는 파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기초하여 기술자, 기능공들이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치고 과학

자들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그 어떤 최첨단설비도 적절 만들어 내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김부, 백성철물부품을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생산자 과학기술이라는 관점에서 기술자, 기능공들 모두가 공조사업과관련을 위한 투쟁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고 가지고있는 기술혁신안과 창의고안들을 한가지이상씩 생산에 받아들여도록 사회주의경쟁의 원리란을 일으키고있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에서는 기술혁신실질 조제운동부문을 비롯한 기술자들이 앞장서 있어, 이들은 소모부분과 가공부분의 현대화에 모를 박고 현대적인 지구, 장비들을 창안 도입하여 생산성을 종전보다 훨씬 높이고있다.

공구제작, 천년제작, 부속품제작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현대적인 과학기술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프레스, 형태조립기계를 기술개진하는데 한몫 단란히 하면서 치밀한 사회주의경쟁을 벌려 맡겨진 생산계획을 매일 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직장장 한광철동무부 비롯한 부속품제작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설비

들의 만가동을 보장함으로써 천년용수, 씨실물 등 직기 부속품생산에서 집단지적혁신의 불길을 높이고있다. 김부, 백성철물부품 공장 고영세동무와 종업원들도 현대화된 기계설비에도 정통하고 표준조립과 기술규정을 엄격히 지켜 프레스장비, 선반공구기구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공구, 지구장비들을 질 좋게 생산해내고있다.

경영업의 현대화에 있어 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간직한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과 공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인민생활대고조의 해인 올해에 뚜렷한 생의 자취를 남기려는 두눈은 열에 넘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이들은 배양직장의 수직평면연마반과 공구제작의 선반, 후라이선, 원통연마반을 비롯한 기계설비들의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다그치는 한편 공장의 모든 설비들을 기술개조하기 위한 현대적이고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그리하여 도금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목표를 빛나게 집행해나가고있다.

박유정

목표를 높이 세우고

연안군에서

연안군안의 협동농장에서 서 앓그루감자심기가 시작되었다. 공동시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정보당 감자생산량을 더욱 늘일수 있도록 목표를 내세운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감자를 많이 심어야 합니다.》

군의 일군들은 두벌농사 작전을 빈틈없이 하였다. 이들은 협동농장에서 지 대적투쟁에 맞는 우량종종의 종자확보와 맹상처리, 지역농민에게 힘을 넣어 앓그루감자심기를 적기에 끝낼수 있는 전망을 열어나가는 로동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특히 올해 봄철의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감자심기를 적기에 끝낼수 있는 만 단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유기질복합비료 생산기지들에서는 감자농사에 좋은 유기질복합비료를 많이 생산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들에서 혁신의 불길이 타오르고있을 때 감자종자씨피우기장에서 성과가 이룩되었다.

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지난 기간의 경험에 토대하여 종자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이들은 훌륭히 꾸려놓은 저장고에서 겨울동안에 잘 보관한 감자종자들을 한알도 허실없이 싹 피우기 위해 구수함을 바쳤다.

야외감자종자씨피우기장을 잘 만들어놓고 감자씨피우기를 기술적으로 해 단하였다. 도남협동농장에서 감자씨피우기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감자심기작업을 잘 정하고 그에 맞게 종자수를 알맞춤하게 키워냄으로써 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단안의 준비를 갖춘 협동농장에서 감자심기를 일정 계획대로 내밀고있다.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는 오천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감자심기에 헌신의 맘을 바치고있다. 이들은 두벌농사를 잘하여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일 열의로 가슴 불태우며 한알의 감자를 심어도 정성을 다 하고있다.

소경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도 두벌농사에서 앓정실 열의에 넘쳐 앓그루감자심기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이들은 앓그루감자포전에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낸

공동시설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받들고 올해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면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현실에서 그 우월성이

확정된 경제배양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부침면적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알곡생산량을 늘이려면 결정적으로 두벌농사를 해야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두벌모아심기에 의한 감자 대강성이 경제배양법은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다. 이방면을 받아들여야 두벌모아심기의 간격을 3월 하순~4월 상순경에 한이랑에 두벌로 모아심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방면비가 80cm인 경우에는 강성이 줄사이의 간격을 40cm로, 이방면비가 90cm인 경우에는 줄사이의 간격을 50cm로 하는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강성이영양단지모양이 되어 열출후부터는 기술적요구대로 강성이와 감자이랑사이를 깊숙이 후지질하여 토양실적을 끌어주어야 한다.

비료투수를 기술적요구대로 잘하여야 한다. 감자는 영양물질에 대한 요구가 높은 작물이므로 수확고가 높아지게 된다.

이외에도 강성이두벌농사를 할 때보다 김발생물이 적어진다. 또한 감자를 수확한 다음 잎질기를 땅에 묻어주면 이것이 절충은 유기질비료로 되기때문에 지역을

늘일수 있다. 경제배양을 지대적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하자면 일련의 기술적요구를 지켜야 한다.

우선 이랑너비와 줄사이 간격을 효과적으로 정 하여야 한다. 강성을 심어야 할 포전에 80cm 또는 90cm의 간격으로 이랑을 치른다. 싹을 띄워 팽 상처리한 감자종자는 3월 하순~4월 상순경에 줄사이거리가 30cm정도로 된 두벌로 한이랑에 심는다. 강성이영양단지 또는 5월 상순경에 한이랑에 두벌로 모아심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방면비가 80cm인 경우에는 강성이 줄사이의 간격을 40cm로, 이방면비가 90cm인 경우에는 줄사이의 간격을 50cm로 하는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강성이영양단지모양이 되어 열출후부터는 기술적요구대로 강성이와 감자이랑사이를 깊숙이 후지질하여 토양실적을 끌어주어야 한다.

비료투수를 기술적요구대로 잘하여야 한다. 감자는 영양물질에 대한 요구가 높은 작물이므로 수확고가 높아지게 된다.

이외에도 강성이두벌농사를 할 때보다 김발생물이 적어진다. 또한 감자를 수확한 다음 잎질기를 땅에 묻어주면 이것이 절충은 유기질비료로 되기때문에 지역을

늘일수 있다. 경제배양을 지대적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하자면 일련의 기술적요구를 지켜야 한다.

우선 이랑너비와 줄사이 간격을 효과적으로 정 하여야 한다. 강성을 심어야 할 포전에 80cm 또는 90cm의 간격으로 이랑을 치른다. 싹을 띄워 팽 상처리한 감자종자는 3월 하순~4월 상순경에 줄사이거리가 30cm정도로 된 두벌로 한이랑에 심는다. 강성이영양단지 또는 5월 상순경에 한이랑에 두벌로 모아심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방면비가 80cm인 경우에는 강성이 줄사이의 간격을 40cm로, 이방면비가 90cm인 경우에는 줄사이의 간격을 50cm로 하는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강성이영양단지모양이 되어 열출후부터는 기술적요구대로 강성이와 감자이랑사이를 깊숙이 후지질하여 토양실적을 끌어주어야 한다.

농업성 처장 주철규

강제 돼지 공장, 흥주닭 공장

사회주의 경쟁순회 우승기 쟁취

강제 돼지 공장, 흥주닭 공장 주제 99 (2010)년 사회주의 경쟁순회 우승기를 쟁취하였다. 이 단위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과 우리 당의 축산정책을 받들고 공장을 훌륭히 개진하였으며 고기와 알생산을 늘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사회주의 경쟁순회 우승기 수여식이 24일 사리원에서 진행되었다.

리명길 농민맹동위원회 위원장, 리경식농업성, 축산, 가공부문의 일군들, 혁신자들이 수여식에 참가하였다.

경쟁순회 우승기가 있는 다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포상장과 주제 99 (2010)년 사회주의 경쟁순회 우승기 강제 돼지 공장, 흥주닭 공장에 수여되었다. 이어 흥주닭 공장 지체인 김봉철, 강제 돼지 공장 지체인 김진명

김봉철, 사리원닭 공장 초공농민위원장 장진명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올해공동시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과 김철로동계급의 호소를 가슴깊이 새기고 기업판리를 실리있게 짜고들고 고기와 알생산을 전환을 일으켜 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수여식에서는 주제 100 (2011)년 사회주의 경쟁요강이 발표되었다. 【조선중앙통신】



공동시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공우유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수성천종합식료공장에서- 김진명 작음

당의 두벌농사방직을 받들고 앓그루감자심기를 다그치자

실정에 맞는 방법을 받아들여

수안군 통현협동농장에서

높은 포전을 두벌농사포전으로 정한데 이어 질 좋은 거름을 듬뿍뿌려 심어내었다. 그 리고 땅이 녹기 바쁘게 밭을 갈아엎는데 이어 3월 25 일부터 시작하여 열흘안에 앓그루감자를 심었다. 이때 서리가 내려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흙으로 감자를 알맞춤하게 묻어주었다.

강병이는 4월 중순부터 5월 초사이 싹을 튀워서 가루비료를 골고루 묻혀 심었다. 강병이 나옴에 따라 감자가 생기기 않도록 부식토와 전기를 골고루 섞어 마련한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포기마다 묻었다. 감자는 6월말에 캐면서 줄기와 잎을 강병이이랑에 묻어주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질 좋은 거름으로 되었다. 이렇게 하니 앓그루감자농사는 물론 원그루감자농사도 안전하였다. 농장일군이 두이랑은 앓그루감자를 심고 이이랑은 강병이를 심는 방법을 받아들여지고 한것도 지난 기간 영농실적을 통해

확고히 파악된 경제배양법이었다. 두벌농사방법문제는 알곡 생산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부침면적의 지력과 풍토조건, 해비침출 등 여러가지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지를 바로 정하고 실정에 맞는 경제배양법을 받아들여야 하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제6작업반에서는 년중 해비침출과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가장 많이 불어오는가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이랑을 치렀다. 그리고 강병이를 심을 두이랑은 내공도 먼저 다음 두이랑에 앓그루감자를 심었다.

강병이를 심을 때에는 평당 포기수를 늘여 감자를 심지 않고 강병이농사만 지을 때처럼 정보당 포기수를 보장하였다. 결국 감자를 심는 면적은 거저 얻어낸것이나 다름없었다. 이곳 작업반에서는 감자를 캐면서 뒤따라 풍 또는 해바라기를 심었다. 가을의 결실은

원그루로 심은 강병이는 물론 앓그루감과 뒤그루로 심은 콩이나 해바라기도 수확고가 높았다. 농장일군이 내놓은 다른 경제배양법도 과학적인 담보가 있는것이였다.

지난 기간 여러가지 경제배양법으로 농사를 해오는 파정에 과학적인 담보가 있는 방법을 선택한 농장원들은 올해에는 두벌농사방법을 더욱 높이고 앓그루감자심기를 적기에 해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있었다. 여기서 농장일군들이 중시한것은 두벌농사방법을 바로 정하고 포전들의 특성에 맞는 경제배양법을 받아들이도록 한것이다. 이와 함께 농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라 여러가지 유기질비료를 제때에 주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모든 력량을 앓그루감자심기에 집중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창길

본사기자 김창길

사회주의성공담을 쌓아올린 신 천출위인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은 공장

《조선의 사회주의는 그 누구에게도 얽매지 않은 인민 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이다. 조선인민자신이 선택한 조선식사회주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선군령도야에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기치따라 더욱 번영할것이다.》

이것은 최근 영국선군정치연구학회 위원장이 쓴 《주체의 사회주의를 옹호하여》라는 제목으로 된 글의 한 토막이다.

오늘 세계 진보적인인민들이 주체의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억 세계 진진해나아가는 우리 나라의 경이적인 현실에 대하여 찬란의 목소리를 터칠 때면 우리는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수 위원장이었던 알바 차베스가 20년전인 주제 80 (1991)년 1월에 쓴 회상실기 《김일성주체사상과 조선의 사회주의》라는 제목의 글의 한 대목을 상기하게 된다.

기어는 이렇게 적여져있다.

《나는 세계 사회과학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싶다.

오늘의 54억의 인류, 2025년의 85억의 인류, 2050년의 100억의 인류가 나아가길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체사상에서 밝혀주시고 김일성주체사상이요 조선의 사회주의의 길이다.》

그의 이 글은 인류가 세기에 세기를 이어 사회주의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구현되고 인민대중의 지향과 리미가 꽃피는 조선식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신념의 토로였다.

하다면 그의 이 심장의 웨침은 어디서 출발했기였는가.

주제 79 (1990)년 5월 차베스는 남편과 아들딸들과 함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그의 평양방문은 4번째였다. 우리 나라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그는 많은것을 느끼게 되었다.

오랜 세월 사회의 최하층에서 지냈고 버림받으며 신음하여오던 근로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며 세계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모든것을 그들을 위해 복무하는 조선의 사회주의야말로 인류의 동대, 세계의 희망봉이었다.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던 어느날 차베스에게는 뜻밖의 행운이 차례졌다. 조선인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 초청되었던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장내에서는 《반세!》의 폭풍같은 환호성과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의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위대한 성공담을 더욱 높이 빛날시킴을》라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였다.

수줍은 명제, 철의 료리로 일관되고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맥박치는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의 구절구절들은 차베스의 뇌리를 깊이 파고들며 심장을 세계를 두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조선의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사람중심의 사회주의이며 조선의 사회주의의 기본특징은 인민대중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을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사회라는데 있다는것을 명철하게 론증하시며 사회주의의 위업실현방도를 천명하시며 그의 감동은 참으로 컸다.

당시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자본주의가 부각되고있으며 이를 두고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가 《종말》을 고하고있다고 요란스럽게 떠들고있었다.

과연 사회주의가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며 계속 전진할 수 있었는가.

우리의 목소리가 지구상에서 울려나오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 제국주의의 멸망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천명하시고 그 어떤 폭풍이 휘몰아쳐와도 사회주의의 기치를 변함없이 고수할데 대한 사상을 밝히신것은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정리성, 그 불멸성과 승리에 대한 위대한 선언이었고 제국주의의 멸망에 대한 준엄한 선고였다.

강동이 클수록 차베스는 자기 가족과 자신에 대하여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에파드르사 회담을 창건하고 사회주의리념을 신봉하면서 그 실천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한 사람이었다. 그의 아버지 역시 사회주의를 에파드르에 구현하여보

려고 로동운동지도자로 정치활동에 전신하였다. 그들의 영향을 받아 차베스도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시련에 찬 길을 걸어들었다. 이 나날에 그는 감방생활과 망명생활까지 하였다. 하지만 자기 가정이 대를 이어 열망하여오던 사회주의리념과 그를 구현하기 위한 길은 어디서든 찾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접하게 되었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리념에 대하여 독창적으로 밝히시고 조선당에서 사회주의의 성공담을 쌓아올리신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지니시였기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후날 자기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김일성주체사상에서 자신께서는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의 사랑을 받으며 혁명과 건설사업을 하여왔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고국로써 쓴것처럼 인민은 선생이고 박사이며 인민들속에는 철학도 있고 정치경제학도 있다고 하시었다.》

이것에서는 단 한번이라도 인민들과의 접촉을 게을리하고 인민의 존재를 망각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나는 인민에 대한 순결하고 진실한 사랑을 오늘까지 간직하지 못하였을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미소를 담으시는데 나는 인민행렬을 타고 끝까지 같았다고 뜻있는 말씀을 하시었다.》

바로 그것이었다. 인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순교한 사랑을 지니고계시었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땅에서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 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것이였다.

정령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조선의 사회주의제도, 조선인민모두가 동등한 정치적권리를 가지고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벌이고있으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 조건과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혜택을 보장받고있으며 정신문화적재부의 창조자로, 그 향유자로 되어 참된 자주적살과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시는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회주의, 그것은 세기에 유일무이한 진정한 사회주의였다.

이것은 차베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은 확신이었다.

그는 인류가 조선식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나아가길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것을 굳은 신념과 의지로 간직하였다.

그는 견정하는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빛내이시는 조선식사회주의는 세계사회주의의 기원대, 자주의 기관차라고 간주하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차베스는 인류를 위해 두고 조선식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격조높이 웨쳤던것이다.

본사기자

화, 예술화되어 하나의 공원으로 전변되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연혁소개를 돌아보신 다음 CNC설비공기공장, 2가공작장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기술장비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CNC공작기계들과 로봇드들로 일체화되어있는 자동화된 생산공정들에서 실종은 각종 공구들이 생산되는 모습을 보시고 공장노동자들과 건설자들의 장의장비상태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운산공기공장에서 현대화, 자동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제품생산과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인 결과 최첨단을 돌파하며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기계공업이 요구하는 공구들을 원만히 공급할수 있게 되었고 기업을 급진 못하면서 최상급의 CNC공기자동화설비에 김일성상을 수여하고 개발자들에게 높은 국가수훈을 하도록 친히 제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특색있게 건설된 문화회관과 구내식당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문화생활정형과 후방사업실태를 자세히 알아보시었다.

계속하여 신문은 조선인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파업들과 전망목표, 그 수행방도를 가르쳐주시고 운산공기공장의 로동계급이 앞으로 공구생산에서 더 큰 자랑찬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실현에 적극 기여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시하시었다고 전하였다.

모스크바발 본사특파기자 최학철

선군정치 - 평화수호의 보검

영국 단체 인터넷에 특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8돐에 즈음하여 영국선군정치연구회가 23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부대를 시찰하시는 사진을 모시고 《선군정치 - 평화수호의 보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와 남조선 피뢰호전정당의 꾀임있는 전쟁책동을 조선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커다란 위협으로 되고있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미제와 남조선호전정당의 집요한 군사적도발과 반공공작책동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방지되고 평화와 안정이 수호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김정일동지께서 권력시는 위대한 선군정치의 결과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선군정치는 미제의 강권과 전횡을

오스트리아, 인디아 단체 미국 남조선군사연습 규탄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추진협회가 미국과 남조선호전정당의 전쟁책동을 규탄하여 3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력에 배치되게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는데 대해 경악을 표시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위한 전체 조선민족의 념원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된다.

현실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력의 결과로 마련되었던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을 남조선당국이 왜 의도적으로 결렬시켰는가 하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또한 미국이야말로 군사연습의 미명하에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핵공격수단들을 들이밀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가로막는 장본인이라는것을 증명해내고있다.

우리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 일익을 반드시 이룩되리라고 확신한다.

진인디아조선선선협회, 진인디아농업근로자동맹, 진인디아농민연맹, 진인디아법률가련맹이 미제와 남조선호전정당의 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과 남조선호전정당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세계평화를 위한 진보적인 민들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북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의 음모책동 비난

볼리비아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21일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음모책동을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제개발자 항시적으로 볼리비아를 반대하는 간계를 꾸미고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이를 더는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자기 나라에 들어와있는 미국제개발자 성원들을 추방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적들의 군사적책동에 대해 경고

이란공군 부사령관이 21일 자기 나라를 반대하는 적들의 군사적책동에 대해 경고하였다.

그는 현대적인 비행기와 무장장비를 갖추고있고 풍부한 전투경험을 가지고있는 이란공군은 적들의 그 어떤 침략책동에도 단번에 짓부셔버릴것이라고 말했다.

이란공군은 적들의 사소한 움직임도 예리하게 추시하고있으며 도발에 대처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가 되어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여러 나라 협조

△ 중국과 벨라리아가 15일 두 나라 정부기관들사이의 협조관계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채택하였다. 같은 날 벨라루스와 로씨야는 원자력발전소건설과 관련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 그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16일 수공, 예체능, 체육, 국경안전, 반마약투쟁 분야에 협조관계를 강화할데 대해 합의하였다. 이에 앞서 5일 짐바브웨와 나미비아는 기술협조에 관한 양해각서에 조인하였다. 17일 수리아와 에파드르리는 경제, 무역, 사법 등 분야에서 협조협조제에 대한 5건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나라이 경제형편에 우려

미국민들속에서 나라의 경제형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21일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발표한 전국적인 조사결과에 의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II

중국에서

중국 산성성에서 지난해 산설시방대들의 역할을 높여 큰 성과를 올렸다고 보도하였다. 현재 성에는 97개의 산설시방대가 꾸려져있으며 그 성원수는 4 400여명에 달한다.

중국 산성성에서 지난 30년동안 의무식생활을 통해 총 36억구의 나무를 심었다. 이 기간 성적으로 10억여명의 각계층 주민들이 나무심기에 참가하였다. 현재성의 산설시방대는 22.8%에 달한다.

캄보자에서

캄보자의 서북부지역에서 21일 도로건설공사가 시작되었다. 길이가 176km에 달하는 이 도로를 바텀방, 본데에 미얀메이, 바이런주들을 연결하게 된다. 공사는 4년동안 진행되게 된다.

유대용물려과 장치 개발

어느 한 나라의 연구자들이 최근 긴급구제활동에 쓸수 있는 새로운 휴대용물려과장치를 개발하였다.

장치는 흡수성을 가진 다공성층을 리용하여 만들어졌다. 연구자들은 사람의 손바닥 두께만 한 두꺼운 다공성층의 겹편에 은나노층을 씌운 다음 물을 통과시켜보았다.

장치는 물을 리파시키면서 거의 모든 박테리아를 제거하였다 한다.

본사기자

브라질에서

브라질에서 21일 전국적인 일감전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번 일감전은 특히 유선암과 자궁암을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25살부터 59살까지의 모든 여성들이 병원에서 무상으로 해당하는 검진을 받게 된다. 하에서 이 사업에 많은 자금을 들이고있다.

칠레에서

칠레에서 반마약투쟁을 적극 벌이고있다. 나에서 오는 올해 1월과 2월에 7만 9 834구루의 마약작물을 적발, 처리하였다. 2일이 나라 내 무상이 이에 대해 밝혔다.

지진

● 뉴질랜드 사우스섬의 크라이스트처치에서 20일 리히터척도로 5.1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시로마리 동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 로씨야의 아무르주에서 17일 리히터척도로 5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진앙은 네투그리시르페 서쪽으로 190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또한 로씨야의 캄차카공부지역 앞바다에서 20일 리히터척도로 5.7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페트르바블롭스크-캄차츠키로부터 동쪽으로 205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 인도네시아의 파푸아주와 말루우주에서 12일 리히터척도로 각각 5.4, 5의 지진이 연이어 일어났다. 진앙들은 차야푸라로부터 서남쪽으로 162km, 써울라기로부터 서북쪽으로 261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서부사뽕가라주에서 11일 리히터척도로 6.6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주의 솨바와 베스트라부르 서북쪽으로 165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본사기자

오늘의 세계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하여 지구상의 동식물이 서서히 사라지고있다. 과학자들은 동식물이 이런 상태로 계속 사라진다면 2055년경에 가서 25%가 멸종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어느 한 나라 종합대학의 생물학자는 지구상의 동물종 1만 8 000종이 멸종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새류의 10분의 1, 포유동물류의 5분의 1, 망서류의 3분의 1이 멸종위기에 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지구온난화는 동식물뿐 아니라 인류의 생존도 위협하고

신형독감피해

베네수엘라의 미란다주에서 최근 A (H1N1)형 독감환자가 퍼져 피해를 입고있다. 18일 주보건당국은 신형독감이 널리 퍼졌고 1명의 환자가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4명의 환자가 새로 등록되었다. 현지에서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또한 중국 홍콩에서 10일 2명의 A (H1N1)형 독감환자가 새로 발생하였다. 한편 신형독감에 걸려 앓고있던 1명의 여성이 사망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를 기록하였다.

온실가스가 많아진것은 산업화와 관련된다. 실제로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고 농업과 축산업이 발전하면서 온실가스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2009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로 온실가스방출량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대기중의 온실가스농도는 여전히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였다.

사람들은 온실가스방출량의 감소에 따라 대기의 온실가스량도 적어지자 하지않았는가 하고 반문할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세계기상기구 주중국장은 이산화탄소가 대기중에 한번 쌓인 후엔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50년이상 걸리기때문에 적은 양이 추가되더라도 사상 최고기록이 될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온실가스량증가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발전된 나라들에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발전된 나라들은 산업혁명초기부터 1950년까지 화석연료를 통해 이산화탄소방출총량의 95%를, 1950년부터

2000년까지 77%를 배출했다고 한다. 세계인구의 5분의 1도 안되는 발전된 나라들은 세계가 소비하는 에너지총량의 70% 이상을 소비하고있으며 온실가스의 절반이상을 방출시키고있다. 특히 미국에서 방출되는 온실가스량은 방대하다. 몇해전 미 에너지국은 전적으로 온실가스방출량이 그 전해보다 0.5%, 1990년에 비해서 10.9%나 늘었다고 밝혔다.

세계의 년간 이산화탄소방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산업혁명후 화석연료를 리용하여 막대한 재부를 축적하였다.

사람들은 지구온난화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핵발전소를 짓는것이다. 그러나 핵발전소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다. 그러나 핵발전소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다. 그러나 핵발전소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다.

본사기자

강조하였다.

얼마전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제11기 제4차회의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중국 《인민일보》는 회의가 원만한 성과를 이룩한데 대해 열렬히 축하하면서 회의에서 내달림으로 핵심성격발전과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과학기술발전을 과학기술적으로 힘있게 안바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중국당과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에 보다 큰 힘을 넣고 있다.

새해를 맞으며 호금도주석은 《각국 인민들의 부를 높여 공동으로 중진시키자》라는 제목으로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신년사에서 그는 2011년은 중국이 제12차 5개년계획기간에 들어서는 첫해이라고 지적하고 새로운 한해에 중국인민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승승장구해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당과 국가의 지도자들도 이것을 참관하고있다.

참관파견에 호금도주석은 제12차 5개년계획기간의 경제 및 사회발전목표와 과제를 수행하고 치열한 국제경쟁속에 발전의 주도권을 틀어쥐는데서 가장 근본적인것은 과학기술에 의거하는것이며 과학적진언은 자주혁신능력을 높이는것이라고 말했다.

본사기자